

# “첫 주연작 부담감 컸죠”

### 지창욱, 영화 ‘조작된 도시’ 강렬한 액션 눈길 ... 9일 개봉

배우 지창욱(30)은 한때 본명 대신 ‘동해’로 불렸다. ‘동해’는 시청률 40%대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KBS 일일드라마 ‘웃어야 동해야’(2011)에서 그가 맡은 배역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동해’처럼 밝고 선량한 이미지로 기억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액션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KBS2 ‘힐러’(2014)를 통해 액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tvN ‘더케이투’(2016)에서 전쟁 용병 출신의 경호원 역할을 맡아 액션스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지창욱은 첫 스크린 주연작 ‘조작된 도시’에서도 그의 장기를 살려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오는 9일 개봉하는 ‘조작된 도시’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던 백수 권유(지창욱)가 한순간에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뒤 컴퓨터 게임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안방극장에서는 이미 스타지만, 스크린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배우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주연배우가 약하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창욱은 “첫 주연작이라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극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그러면서도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제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만화 같은 요소가 있어서 잘 표현될까 고민도 했는데, 감독님을 만나면 뒤에는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조작된 도시’는 ‘헬컴 투 동막골’(2005)의 박광현 감독이 1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박 감독은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은 면에 끌려 지창욱을 캐스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창욱은 이번 작품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두

들겨 맞고, 눈물을 흘린다. 특히 흥악범들만 모여있는 교도소 장면을 촬영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맞는 장면이 많았어요. 진짜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리액션을 계속 찍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았죠. 또 배역에 몰입하다 보면 실제로 화가 나기도 했고요. 권유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억울함과 같은 그런 감정들에 계속 휩싸여있었어요.”

지창욱은 이 작품에서 심은경과 호흡을 맞췄다.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은경 씨도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정말 여우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제가 연기할 때 큰 도움이 됐죠. ‘더케이투’에 출연한 윤아요? 은경 씨와는 정반대죠. 성격이 밝고, 말도 많고, 낯가림이 없어요. 당시 드라마 첫 촬영 때부터 윤아와 키스신을 찍었는데 그 전에 빨리 친해지려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게 기억나네요.”

지창욱은 2008년 KBS 드라마 ‘난 네게 반했어’로 데뷔해 KBS ‘솔약국집 아들들’(2009), MBC ‘히어로’(2009), SBS ‘무사 백동수’(2011), ‘다섯 손가락’(2012) 등으로 연기 경력을 쌓았다. 2014년 MBC 사극 ‘기황후’에서 비운의 원나라 황제 순제(타환) 역할을 맡아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외모와 달리 선글라스를 즐겨 착용하는 그는 “비운의 황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어요. 여렸을 때는 ‘젠’ 작품 위주로 제가 선택하기도 했지만, 트렌디한 작품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마흔 살 되기 전에는 ‘로코킹’도 하고 싶네요. 공포영화나 조폭물에도 출연하고 싶고요.”

그동안 쉽지 않았던 지창욱은 입대를 앞두고 있다. 입대 전에 한 작품에 더 출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래 쉬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마음의 병이 싹 사라지곤 합니다. 평소에는 친구 2~3명과 함께 바이크를 타고 카페나 맛집을 찾다니네요. 새로움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지창욱  
▶  
조작된도시



# ‘불어라 미풍아’ 막장 불구 시청률 20%

### 자극적 소재로 시청자 유혹

‘막장 드라마’의 길로 접어들어 질주하는 MBC TV 주말극 ‘불어라 미풍아’가 시청률 20%를 넘어섰다.

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된 ‘불어라 미풍아’ 47회는 전국 21.6%, 수도권 22.4%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불어라 미풍아’는 중반까지 시청률이 1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악녀 신애(임수향 분)의 막장 악행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짓인 신애의 악행이 두달째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져 시청률 상승세를 꺾고 있다. 매회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지만 코미디 같은 알뜰한 아이디어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반복돼, 어느 질 낮은 막장 드라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일 방송에서는 진짜 거짓말이 밝혀지거나 했더니 또다시 어이없이 실패했다. 탈북자의 사랑과 정작기를 인간적으로 그려 보려는 연출의 의도는 이미 실종됐다. 신애와 그 시어머니 청자(이희향)의 슬랙스틱 악행이 드라마의 전체를 장악한 지 오래다. 여기에 미풍(임지연)의 악덕 시어머니 김



실(김보라)의 패악도 있을만하면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지루함 속에서도 시청자의 원초적인 분노를 에스컬레이션하고 있다. 지난해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불어라 미풍아’ 등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발전상을 체감하고 동경하게 됐다고 증언한 게 무색할 정도다.

거짓말, 납치, 폭행, 누명 씌우기, 바뀌어가는 기본에, 혈연을 놓고 장난질하는 이야기가 내내 이어지면서 실감감을 안겨주지만, 자극적 막장 전개는 손쉽게 시청률을 끌어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 백일섭·정원관·일라이 ‘살림하는 남자들2’

### 22일 오후 8시55분 첫 방영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자의 평균 연령이 상향 조정됐다.

KBS는 오는 22일 시즈2로 재개하는 ‘살림하는 남자들’에 배우 백일섭(73), 소방차의 정원관(52), 유키스의 일라이(26)가 출연한다고 6일 밝혔다.

백일섭은 최근 결혼 40여년 만에 ‘졸혼’(卒婚)이라는 선택을 하고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있다. 졸혼은 결혼에서 졸업한다는 뜻이다.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지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간다.

정원관은 2013년 17살 어린 신부와 결혼해 현재 14개월된 딸을 키우는 ‘늦깎이 아



백일섭·정원관·일라이

빠’다. 시즌1 출연자 중 유일하게 시즌2에 합류하는 일라이는 정원관과 정반대로, 2014년 11살 연상의 레이싱모델과 결혼해 지난해 아들을 얻은 ‘어린 아빠’다.

‘살림하는 남자들’은 7일 시즌1을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수요일 오후 8시55분으로 자리를 옮겨 시즌2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 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재) 1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정당) 50 한국인의 팔도방상 스페셜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들 흉년 도적)(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정당)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정당)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다큐 공감 (재)	00 1대 100	05 TV속의 TV	55 닥터 365
2	55 취재파일 K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5 텔레스타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특? 특! 키즈스쿨 55 응까 쇼나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라라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특집 대전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슈퍼 VR 신년기획 지붕없는 박물관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들 흉년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C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50 극한직업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10:30 한국기행(재)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아시아 맛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5 피터레빗	《애니의 서울 사랑》
- 자카르타 음식탐험》	(이중원의 두부구이 나물비빔밥)	15:20 아웅명명 귀여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오솔 상지2	《인살라, 모로코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코코몽 3	- 카리비의 황금루트, 사하라)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양자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45 지식채널e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간질간질 - 가족 본능)
08:00 덩동덩 유치원1~3	13:35 류티플 코리아	17:30 로보카 폴리(재)	22:45 리얼극장-행복
08:45 부릉부릉! 부르미즈	(1억4천만 년의 기억, 우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출동! 슈퍼피스	13:50 그림을 그려요?	19:00 소피 루비	《커뷰》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3:55 캐니멀	19:30 EBS뉴스	다른 이유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 (음 1월 11일 乙丑)	
子	48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하 하라. 60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72년생 어두운 동굴 속 같은 비밀이 보인다. 84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83, 31	午	42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54년생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을 갖는다. 66년생 차근차근 해나간다. 78년생 비슷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쇄하는 것도 좋다. 90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7, 91
丑	49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61년생 길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73년생 아직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보아 할 판국이다. 85년생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40, 24	未	43년생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55년생 완전한 반전될 수도 있는 가운데이다. 67년생 잘 살펴 볼 일이다. 79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 91년생 탄력이 있으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라. 행운의 숫자 : 43, 97
寅	50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62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74년생 평판을 의식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니 이에 차지하고 소신대로 일할 바이다. 86년생 하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5, 69	申	44년생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56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니 허방 짐지 말아야 하느니라. 68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80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가니 난감해 지리라. 행운의 숫자 : 55, 21
卯	51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63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75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87년생 음식은 갈수록 좋고 맑은 갈수록 보태진다. 행운의 숫자 : 84, 61	酉	45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57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69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81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행운의 숫자 : 36, 74
辰	52년생 주관이 치우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64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76년생 솔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88년생 일정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10	戌	46년생 걸음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갖가지 난제를 당어리다. 58년생 성사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70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82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자. 행운의 숫자 : 50, 66
巳	53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65년생 중추대한 일이므로 잘 세겨 두어야 할 것이다. 77년생 처음부터 오르지 않는 것이 마땅도 편하고 안전해졌다. 89년생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혀야 먹는 법이리라. 행운의 숫자 : 35, 87	亥	47년생 결과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59년생 오랫동안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생겨날 것이니라. 71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83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 가 더 크다. 행운의 숫자 : 15, 9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경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